



즉시 배포용: 9/16/2015

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는 자동차 구매자들이 온라인 사기에 노출되어 있다고 소비자 경고를 발표하였다.

*차량관리부에 사고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수사관들은 온라인 자동차 구매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하였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최근 뉴욕 주 차량관리부(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 온라인 중고차거래 사기 피해 접수가 급증하고 있는 관계로 인터넷을 통한 중고차 개인거래 소비자 경고를 금일 발표하였다. 뉴욕 주 차량관리부 수사관들은 다른 연방, 주, 지역 공무원들과 협조하여 온라인에서 구매한 도난 차량 및 부품에 대해 150만 달러에 상당하는 보상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Cuomo** 주지사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너무 조건이 좋아서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실제 매물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공식 달러와의 거래 시 적용되는 보호책들은 개인 거래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이 인터넷 거래에 몰려들고 있는 것이죠. 저는 모든 뉴욕 주민들께 사기사건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구매 전 철저히 매물을 조사할 것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주 수사관들은 뉴욕 주 전체에서 월별로 평균 24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건은 온라인 사기와 관련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피해 사례를 수사하여 8월에만 6명의 사기범들을 구속하였다.

차량관리부는 두 개의 전형적인 중고차 온라인 사기 형태를 파악하였다.

- 도난 차량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기꾼들의 온라인 게시물을 보면 “빠른 현금 결제” 또는 “이혼하기 전에 급처합니다” 기타 “급매” 상황과 관련된 문구를 올린다. 보통 그러한 매물은 시장가보다 훨씬 싸게 올려놓거나 “현금 결제”만 가능하게 되어 있으며 관련 증서는 대부분 허위이거나 다른 차에서 가져온 것이다.
- 자동차 소유관련 문서를 숨기거나 위조하는 경우 대부분은 도장을 찍어 자동차등록증을 가리거나 주행기록 정보를 조작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사기꾼들은 이러한 수법으로 판매 시점에서의 차량 가치를 높인다.

이번 여름, 수사관들은 이러한 종류의 사기사건에 20 여명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기로 인해 체포된 판매자들은 위조, 사칭, 도품의 불법점유, 기타 중대 범죄로 기소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뉴욕 주 차량관리부 행정 부부장인 **Terri Egan**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자동차 구매는 개인에게 있어 상당히 큰 지출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구매자들은 반드시 보다 더 공을 들여서 구매하고자 하는 차량이 합법적인 매물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험 신호는 없는지 잘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터무니없게 낮은 가격으로 매물이 올라왔거나 판매자가 직접 거래하기를 원치 않는다거나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하다거나 게시물에 판매자의 개인 정보가 누락되어 있다면 보다 특별한 주의 기울여야 합니다. 저는 모든 분들께 온라인 차량 구매의 위험성을 필히 숙지할 것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중고차 매매 사기는 뉴욕 주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인터넷에서만 사기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판매자의 집 앞에서 구매하거나 중고차 거래상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에도 사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물론 인터넷을 통해 개인 거래를 할 경우에는 보다 싸게 자동차를 구매할 수는 있겠지만 불리한 점도 많다. 개인 매물에는 보증 기간을 두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구매자가 매물이나 구매 과정의 하자를 호소하면 개인 판매자들은 대부분 구매자에게 문제를 떠넘기거나 오히려 구매자에게 법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관행과는 반대로 [불량 중고차법 \(Used Car Lemon Law\)](#) 에 따르면 중고차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판매자가 무상으로 하자를 보수해줘야 하는 항목이 명시된 서면화된 보증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사기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예방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온라인으로 중고차를 구매할 때에는,

- 침수 흔적과 자연 재해로부터 손상을 입은 흔적이 없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자동차가 침수된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부품이 부식되게 된다. 자동차 카펫 밑, 계기판, 기타 자동차 부위를 살펴 녹이나 곰팡이가 슬지 않았는지 살펴야 한다.
- 심각한 사고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도장 상태가 균일한지 살피고 특히 엔진 수납부와 트렁크 부분을 중심으로 차체의 피해 흔적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시동을 걸어보고 에어백 기타 경고등이 켜졌다 꺼지는 것을 살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체크해야 한다.
- 숙련된 정비공에게 검차를 맡겨 차가 안전한지 확인해야 한다.
- 절대 현금으로 결제해서는 안 된다.
- [판매자의 소유를 나타내는 증빙 서류](#)를 반드시 수령해야 한다. 뉴욕 주에서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뉴욕 주 이외에서 발행된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하거나 전

차주가 판매인과 다를 경우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뉴욕 주에 등록된 차량을 구매할 때에는 해당 차량에 다른 관할 구역의 등록 스티커나 검사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지 필히 살펴야 한다.

· 숙지 사항 차량관리부의 중고차 등록 및 자동차등록증 발행 요건을 잘 알아두기 바란다.

•• 가급적이면 자동차 차대 번호 (VIN)를 ‘국가보험범죄부서 (National Insurance Crime Bureau)’에서 제공하는 무료 VIN 확인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기 바란다. 차량관리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링크를 통해 이러한 무료 확인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해당 매물의 도난 여부를 살펴볼 수 있으며 국가보험범죄부서에 등록된 보험 회사를 통해 해당 차량의 사고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 이러한 차대 번호 확인을 요청하면 CARFAX나 NMVTIS에서 해당 차량의 이력을 완벽하게 조사한다.

차량관리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dmv.ny.gov](http://dmv.ny.gov)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알아보기 바란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